

# 트럼프가 하룻밤에 3000억원을 태운 시연

태평로



임민혁  
국제부장

미국이 최근 이란 핵 시설을 폭격한 '한밤의 해머(Midnight Hammer)' 작전 때 사용한 벵커버스터 GBU-57은 1발당 가격이 400만달러(약 55억원) 정도다. 미 공군은 이 폭탄을 포르도·나탄즈 지하 핵 시설에 14발 떨어뜨렸다. 이 비용만 800억원 가까이 된다. GBU-57을 신고 나른 B-2 스텔스 폭격기가 한번 뜨면 연료·정비 비용 등을 합쳐 시간당 15만달러(약 2억1000만원)가 소요된다고 한다. 이번 작전에 미국은 B-2 9대(교란 작전용 2대 포함)를 투입했다. 미 중부 공군기지에서 이란 핵 시설까지 왕복 36시간이 걸렸다. 여기에 또 680억원 넘게 들었다.

이게 다가 아니다. 핵잠수함에서 한 발당 가격이 30억원 하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20발 이상 발사했고, 5세대 전투기와 공중급유기·정찰기 등 125대 이상의 항공기가 참여했다. 미 군사 전문가들은 '한밤의 해머' 작전에 든 비용이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분쟁에 돈을 쓰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던 사람이다. "미국 세금으로 왜 남의 나라를 지켜주냐"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다.

그런 트럼프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위해 이란 보트를 선제 폭격했다? 그것도 하룻밤에 3000억원을 태우면서? 아무리 한 해 국방비가 1000조원이 넘는 미국이라 해도 3000억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한국에서 받아내는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1년 치의 20%쯤 된다.

트럼프의 소신이 갑자기 바뀌었을 리는 없고, 이스라엘이 제시한 솔깃한 손의 계산서가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봐야 맞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란 방공망을 완벽히 파괴하면서 닷이준 길로 미국은 손쉽게 들어가 '최후

이스라엘의 솔깃한 계산서  
美的 '이란 폭격' 이끌어내  
계산과 힘이 앞서는 밀림서  
한국만의 생존법은 무엇인가

의 일격'만 날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했다. 트럼프는 외교·안보 업적 리스트 최상단에 '이란 핵 문제 해결'(논란이 있지만)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그 과정에서 미군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트럼프는 "연일 관짝에 미군 전사자가 실려 오게 하던 부시·오바마·바이든과 난 다르다"고 자랑할 수 있다. 노벨평화상에도 한발 다가섰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때, 이 정도면 3000억 원 써도 남는 장사 아니냐?"라는 이스라엘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하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트럼프의 수지타

산을 맞추지 못했다. 미군 무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우크라이나에 트럼프는 패트리엇 미사일 등 핵심 무기 지원을 끊겠다고 한다. 이란과는 체급이 다른 러시아를 상대로 미국이 품 나는 전리품을 챙기는 게 쉽지 않다. 미국은 '영양가' 없는 우크라이나 부담을 나토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불과 몇 주 간격으로 벌어진 일련의 일들은 대의명분 같은 고상한 가치는 뒷전이고, 비정하고 냉엄한 계산과 힘의 논리가 앞서는 국제정치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 미국 학자는 이를 '잘 다듬어진 정원(庭園)은 가고, 잡초와 덩굴이 뒤덮은 밀림이 돌아왔다'고 표현한 바 있다. 밀림의 상징적 인물인 트럼프는 일방적 관세 부과 내용을 담은 '죽음의 편지'로 전 세계를 떨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

트럼프 육하고 미국 닳하는 건 쉽지만 그렇다고 이게 답이 될 순 없다. 트럼프는 약육강식 세상을 가장 노골적이고 천박한 모습으로 보여줄 뿐, 누가 미국을 이끌든 미국이 과거와 같은 '정원사' 역할을 맡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나라가 저마다 생존법을 고민하는 이유다. 이스라엘의 경우 과정의 정의로움 따위는 제쳐놓고 최고 포식자와 철저하게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원하는 밥상을 차려주고 행동을 이끌어내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 살아남는 게 최고의 선(善)인 이 밀림에서 한국만의 생존법은 무엇인가.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89]

## 불타는 창문

어떻게 칠한 벽면 정중앙에 격자 창문이 있다. 창문에는 빨간색 아크릴판이 끼워져 있고, 조명이 깜빡여서, 마치 창 너머에 거센 불길기 일어난 듯하다. 물론 전시실에 불이 났을 리 없고, 열기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을 슬하게 보아왔다. 붉게 물든 창은 지옥 같은 재난의 전조다.

캐나다 출신 미술가 잭 골드스타인(Jack Goldstein·1945~2003)은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흔히 '픽처스 제너레이션'이라는 작가군과 함께 언급되곤 했다. 이들은 텔레비전, 광고, 영화 등 대중매체의 이미지가 우리의 시각 환경을 어떻게 장악하고, 세계에 대한 인식을 규정하는지 비판적으로 탐구했다. 특히 골드스타인은 단순히 대중적 이미지를 차용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이미지와 현실의 괴리, 이미지를 대하는 관객들의 윤리적 태도를 끝없이 질문했다.

'불타는 창문'의 상황은 혼란스럽다. 우리는 창문 안에서 바깥을 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창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일까? 한 가지 분명한 건, 작가의 말처럼 창문이 '안전하지만 깨지기 쉬운 장벽'이라는 점이다. 작품은 관객과 제



잭 골드스타인, 불타는 창문, 1977년/2015년 재제작, 나무와 아크릴판·조명 등, 가변 크기.

난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 같지만, 저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이 곧 이곳에 들이닥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남긴다. 붉은 창 앞에서 느껴지는 차고도 고요한 공기는 오히려 불안을 증폭하는 영화적 장치다.

지금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곳곳은 역대 최악급 폭염에 휩싸여 있다. 기온이 체온보다 높고, 산물은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한때 영화 속 재난의 은유였던 붉은 창은 이제 더 이상 비현실적 장치로만 남아 있을 수 없다. 이 여름, 우리는 언제까지 창 너머에 머물 수 있을까? 포스트백 교수·서양미술사

## 社 說

### 방송법 난기류, 짜고 치나, 불협화음인가

방송법 개정안이 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반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시청자 위원회 등에 주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추천권을 언론노조 등 친여 세력에 몰아줘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했다. 실제 이 법안은 시행 후 3개월 내에 방송사 이사회를 한꺼번에 교체하도록 돼 있다. 새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는 의심을 살 만하다.

이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의 구조와 관계없이, 누가 집권하느냐와 관계없이 국민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개별 법안에 의견을 밝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방송법 개정을 주도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이 전날 "이 대통령의 중의 반영원 법안"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불과 6시간 만에 민주당은 방송법을 밀어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과 만찬을 한 민주당 상임위원장은 "대통령이 방송법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아니라 헛갈리게 만들려는 의도처럼 보인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도 야당으로서 비슷한 법안을 추진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 입장을 정반대로 뒤집고 KBS와 MBC 사장을 폭력적 방법으로 내쫓았다. 그러다 다시 입장을 바꿔 방송법을 일방 처리하려 한다.

대통령실은 국민에게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부정적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하면서,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어느 쪽이 대통령의 진심인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의 권위와 권력이 최고조인 임기 초에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방송법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방송법을 일방 처리하도록 하고 이 대통령이 이 일과 상관없는 듯이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것인가. 역할 분담인 셈이다.

대통령 말대로 누가 집권하느냐와 상관없이 지지받을 수 있는 방송법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야당과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다.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있다. 대통령이 민주당에 합의 처리를 공개 요청할 수 있다. 그러지 않는다면 실제 의중은 방송 장악에 있으면서 겉으로만 아닌 척한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 혁신하는 척하려다 실패한 국힘 구주류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기로 했던 안철수 의원이 7일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했다. 안 의원은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벽에 부딪혔다. 최소한 2명의 인적 청산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자신이 인적 청산을 요구한 인사들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라고 말했다. 대선 때 국힘 지도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였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혁신의 시작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혁신을 시작도 못 할 바에야 그만두겠다는 뜻이다. 안 의원은 자신이 직접 당대표 선거에 나서겠다고 했다.

안철수 혁신위의 좌초는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국힘은 대선 패배라는 민심의 심판을 받고도 당 내부에서는 "졌지만 잘 싸웠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러더니 계엄과 탄핵의 책임을 져야 할 구주류(진운계)의 지원을 받은 원내대표가 선출됐고 이들을 중심으로 또 비대위를 구성했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세력이 자신들이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다시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물러나면서 "당의 몰락을 가져온 기득권이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했는데, 혁신위 좌초를 통해 이 말이 사실로 증명됐다. 구주류들은 계엄을 비판하고 탄핵을 찬성했던 안 의원을 방해 삼아 다음 당권을 잡고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다. 국힘의 주류가 교체되면 다음 총선에서 자신들이 공천을 받지 못할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국힘은 총선에서 연패했고 대선도 참패했다. 민주당이 없는 존재 취급할 정도로 국회 의석수도 107석에 불과하다. 정상적 정당이라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해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당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런 변화에 성공해도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 결과가 불투명할 정도로 국민의 불신까지 받고 있다. '반(反)이재명' 외에는 아무런 희생과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텃밭인 대구·경북의 지지율이 대선 때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힘 의원 대다수는 정치를 하는 목적이 개인의 영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희생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계속 뽑아주는 유권자들이 변해야만 이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 의혹 많은데도 의석 많다고 "한 명도 낙마 없다"니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이 거의 매일 불거지고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남편이 바이오 업체 감사로 스톱워킹 1만주를 받았지만 강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는 빠져 있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남편이 강원도 평창에 농지를 보유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농지법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소유가 제한되는데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인전에서 일하는 의사다.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코로나 대응을 총괄할 때 배우자가 손 소득제 관련 주식을 매입해 이해 충돌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해 1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한다. 제2 논문 가로채기 등 의혹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 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이 대통령 팬 카페에서도 "지명 철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 측은 "거취 고민은 안 한다"고 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수년간 일하지도 않으면서 월급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문 표절, 투기, 이해 충돌 등은 민주당이 장관 결격 사유로 강조했던 내용이다. 과거 이런 의혹들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 낙마한 장관 후보자가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장관 후보자들은 대부분 "청문회에서 말하겠다"며 해명을 피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출처 불명의 현금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내지 않다가 청문회에서 확실하게 소명하지 못했지만 임명이 강행되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버티면 장관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면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통과 의례로 전락한다. 민주당은 7일 "한 명도 낙마 없는 내각 구성이 목표"라고 했다. 행정부와 국회를 장악했고 야당은 있으나 한 존재이니 어떤 의혹이 불거져도 몽고고 임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권력의 오만을 기억하고 심판해왔다. 이번 정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에 <극우> 없다 <극좌>만 설쳐댄다

# 오마이뉴스 등 좌파 매체의 극우 몰이와 맞서 싸우자!

뉴데일리  
newdaily.co.kr

**<극우 딱지-낙인찍기> 선동 광풍**  
<극(權)>이란, 폭력으로 반대세력 척결하려는 것  
폭력은 민노총 집회등 좌파 집회 전용물

■ <극우>가 뭐라고?  
한 SNS 이용자의 글.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했더니.. 극우란다. 간첩 조심하자고 했더니.. 극우란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극우란다. 친중 말고 친미 하자고 했더니.. 극우란다. 부정선거 조사 하자고 했더니.. 극우란다. 북한 핵폐수 조사 하자고 했더니.. 극우란다. 중국 탈파리 육했더니.. 극우란다. 이런 게.. 극우 라면.. 극우 하자.>

누군가 이 글에 <우파가 전부 극우로 보이는 이유는... 니가 상식에서 벗어난 극극극극좌파라서 그런 겁니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 <그들 눈에서 나오는 핏발 서린 적대감>  
<저질 좌익세력>이나 <그들 눈치 보는 <중간파 기회주의 세력>의 악의적 <극우몰이 선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북진북에 맞서는 시민세력은 물론, 탄핵 정권-대선에서 한국 사회를 새로 알게된 <계몽된 젊은 층>들과, <자유 우파 성향 기독교 세력>을 <극우>로 모는 좌파가 <좌익 매체들 중심>으로 유행이다.

<한국의 저질 강성 좌익>과 <북한 3대 세습 정권>은 반대 세력에게 무조건 '극우' 딱지를 붙이고 낙인을 찍는다. 특히 반공의식이 강한 개인과 집단에게 이런 <극우 몰이 선동>을 집중한다.

2020년 4.15 총선을 두 달 앞둔 2월 15일, 북한의 대남 선전-공작 총괄기구 통일선전부 운영 인터넷 매체 <메아리>는 "극우 보수 쓰레기 무리를 싸잡아해 역사의 오물통에 처박자"고 했다. 많이 들던 소리 아닌가.

<반공의식이 강하다고 극우라고 하는 것>은 일토당도 않은 해괴한 것이다. <좌익세력에게 불법적 폭력 행사를 하지 않는 한> 우익이나 우파로 부를 수는 있어도 결코 극우로 부를 수 없다. 좌익 역시 <폭력을 동반하느냐 아니냐>로 좌파와 극좌로 나뉜다.

극좌는 소련 스탈린, 중국 마오쩌둥, 북한 김일성 3대, 캄보디아 폴 포트가 손꼽힌다. 극우는 독일 히틀러 나치, 이탈리아 무솔리니 파시즘, 과거 일본 <천황제 군국주의> 등이다.

극좌와 극우, 둘 다 자유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전체주의다. 게다가 <목적 위해서라면 폭력도 무방하다고 여기거나, 더 나아가 노골적으로 폭력을 조장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는 극좌와 극좌에 가까운 강성 좌파 세력이 존재>한다. 과거 우파 권위주의 정권의 일부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목청을 높이면서도, 세계 최악 김일성 3대 정권의 폭정은 침묵하거나 맞장구를 친다.

이명박 정권 시절 광우병 난동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촛불 정변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들 눈에서 나오던 핏발 서린 적대감과 폭력적 행태>를 보았을 것이다.

■ 악의적 극우 선동 몰이  
한국 우파의 집회는 규모가 커도 대규모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를 찾기 어렵다. 해방 후 좌우 대립이 치열할 때 나타난 물리적 충돌 정도일 것이다.

오죽하면 "극좌에 물리적으로 맞설 수 있는 제대로 된 극우가 있었다면 나라가 이 모양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탄식까지 나오겠는가. 이런 현실에서 무슨 <2030 젊은이들의 극우화>니, <일부 기독교인들의 극우화>니 하는 악의적 선동과 여론몰이를 하는가.

2019년 1월 친(親)문재인 강성 좌파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선재민 전기계부 사무관 등 정권의 처부를 폭로한 공의 제보자 지원 조직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참여 법조인들을 <대부분 극우>라고 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즉각 "극우는 주로 나치즘을 가리키는 말이고 종족 우월주의와 반인도적 폭력성, 영도자 중심의 인치(人治)로 대표되는, 게 발인과 행동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라고 반격했다.

그는 "오마이뉴스와 깊은 관련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주

사파야말로 김일성 민족으로 변형된 우리 민족자상주의,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반인도적 폭력의 옹호,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극명히 보여주는 수명절대주의를 핵심으로 하기에 오히려 자신들이 극우라 불려 마땅할 텐데, 누가 누구를 극우로 부르느냐"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오마이뉴스>는 <극우>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했다.

■ 도태우처럼 싸워야  
<이념 전쟁 / 체제 전쟁>은 <말의 전쟁 / 언어의 전쟁>이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칼럼을 써왔지만 제3자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좌파를 <진보>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하고 반인권적 인 한국 강성좌파-극좌를 <진보>라고 예우해 주는 것은 한국어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악의적 극우 선동 몰이-낙인찍기>에 대해 도태우 변호사처럼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NO. 165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7월 6일 게재 되었습니다.



권순환 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